

인간은 자연에게 태어나서 언젠가는 자연속에 묻히게 마련이지만 그 짧은 생애에 얼마나 생각하고 반성하며 보람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짧은 생애를 의롭게 살고 값있게 죽어간 한 인물이 있어, 그를 너무나도 존경하기에 이 글을 씁니다.

1665년(현종 9년) 9월 24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공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생겨나고 만들어 졌듯이 "나"라는 작은 유일한 존재도 이 세상에 아니 내가 태어난 조국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곧은 성품과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남보다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금도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강직한분이셨습니다.

서기 1726년(영조 3년) 정미에서 시사가 대변할 때 공께서는 어영대장으로서 임명되었으며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1728년 말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며 모든 일에 있어 빈틈이 없으시던 성품이셨는데 3월 15일 역적 이 인좌의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적들은 한밤중에 이 인좌의 지휘아래 복을 치고 외치며 성에 다달았습니다. 성지기는 뇌물에 눈이 어두웠는지 역적에게 뇌물을 받은 후 성문을 열어주어 그날밤 무방비상태였던 공께서는 큰 화를 당하시게 되었고 많은 인명들이 무참하게 해를 입어 죽어 있었습니다.

역적은 공을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하고는 협박하였지만 공께서는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합니다.

"한결같이 나라에 충성을 해왔고 목숨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내 죽은들 굴복할 것이냐."

공께서는 몇 차례 고문을 당하실 때마다 슬펐습니다. 자신이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또는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였을 때 나라는 파멸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역적 이 인좌는 병부가 있는 곳을 알아 내려 했지만 공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남은 충의를 다해 말씀치 않자 이에 분노한 이 인좌는 칼로 위협하였으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자 공을 옥에 가두고 불에 달군 쇠붙이로 온 몸을 지저 붉은 피가 흐르도록 고문하고 고문했으나 공께서는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공은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을 정해진 운명인 자연속에 태어나서 자연속에 묻히는 것이겠지만 공께서는 그후 6일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곤 2달 21일 62세에 옥중에서 나라 위해 돌아가셨으니 모든 백성들은 복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여 소리내어 울고 지옥같은 옥중은 잠잠해 졌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내가 아니면 누가 복수할 것이냐 하시며 이를 악 물으신 공의 일생은 오직 한길만을 곧게 걸어 가신 강직한 분이십니다.

공의 바른 인간성과 진실성은 후에 1804년 유생들이 글을 올려 이조판서를 추증하였고 1873년 충숙공이라는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공은 사명을 완수하고 먼 여행길로 떠났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공의 영혼이라도 조용히 잠들기를 기원하며 벼슬과 함께 충숙공이란 시호를 주셨습니다. 그 뜻은 난리를 당하시고도 충성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잊지 않으시어 해야 할 일을 다했으니 충이요, 굳셈과 덕으로 극복해 공의 바른 인간성과 진실성을 갖고 사시었으니 숙이라 한 것입니다.

꽃이 완전히 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 꽃마저 필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지 슬프기도 하지만 공의 시신은 아산으로 옮겨 졌고 아라산에 공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으니 한복판에서 그분의 높으신 뜻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